

5·18단체 “헌정유린·시민학살 원흉 전두환에 역사적 심판을”

헬기 사격 탄흔 현장 전일빌딩에서 기자회견

“5·18 당시 반인륜 행위 전면 부정·책임 회피”

“광주시민·국민 명예훼손…현명한 판단 촉구”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사자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전두환씨에 대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5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옥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헌정사를 유린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책임자인 전씨를 처벌해야 한다. 희생자 명예를 회복시키는 역사적 심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가 5·18 학살의 실질적 책임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사죄는 커녕, 자신의 회고록으로 오

월 영령들을 모독·편협하며, 호화롭게 지내고 있다”며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라고 역설했다.

또 “전씨는 5·18이 자신과 무관하다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고 변호사를 앞세워 헬기 사격을 부인해왔다. (항쟁 당시 있었던) 암매장·발포 명령·가혹행위·여성 성폭력 등 반인륜적 행위도 부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단체들은 “고(故) 조비오 신부 개인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아니다. 5월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광주시민, 5·18을 영예롭게 생각하는 모든 대한

민국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다”고 이번 재판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을 내란·내란 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이번 재판에도 이어질 길 바란다”며 전씨의 엄벌을 거듭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재판을 통해 전씨가 마지막으로 5·18 영령, 희생자, 광주 시민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



5·18 3단체가 25일 오후 광주 남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린다. 전씨는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

형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금남로 전일빌딩은 2016~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를 통해 1980년 5·18 당시 헬기사격으로 추정되는

245개의 총탄 흔적이 무더기로 발견된 곳이다. 현재 건물 안팎에서 발견된 탄흔은 270개로 잠정 확인됐다. 신봉우기자



아특별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정안 국회 통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와 광주민예총·광주문화도시협의회 등 80여개 지역문화시민사회단체가 25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아특별 개

‘손님 행세’ 금은방서 귀금속 가로챈 고교생 2명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25일 손님을 가칭해 금은방 업주를 속여 귀금속만 가로챈 혐의(절도 등)로 고등학교 1학년생 A(16)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1시32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한 금은방에서 30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손님 행세를 한 A군은 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업주를 속인 뒤 착용한 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주변을 서성이고 있던 A군의 친구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훔친 금팔찌를 전방 담양의 한 금은방에서 되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군 친구는 ‘훔친 귀금속인지 몰랐다. 부탁을 받고 대신 처분해준 것이다. 신분증은 길에서 우연히 주운 것이다’며 절도 범행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품을 회수했으며, A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해해경, 해상·도서 응급환자 하루 2.3명 이송

도서지역 많은 서남해권 해마다 증가



해경이 해상과 도서지역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바다 위 앰블런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5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10월말까지 서해해경 관내인 서·남해권에서 응급환자 2364명을 이송했다.

이는 하루 평균 2.3명 꼴이다. 응급환자 이송은 지난 2018년 786명에서 2019년 874명, 그리고

올 들어서는 10월말까지 704명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 발생장소는 도서지역이 190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선박 등 해상과 해수욕장 등 기타지역이 457명으로 조사됐다.

서·남해권은 도서지역이 많아 응급환자 또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같은 기간 해양경찰청 전체 이송 응급환자 4053명의 약 60%를 차지한다.

실제로 지난 9월6일 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에 따른 악기상 속에서도 완도군 노화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응급환자를 경비함정을 이용해 육상으로 이송했다.

3월25일에는 여수시 거문도 인근 해상을 향해 중이던 화물선에서 발생한 화상환자를 해경헬기로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다.

서해해경은 해상과 도서지역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경비함정뿐만 아니라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헬기를 이용해서도 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승조원들 대상 주기적인 감염 예방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확진자 이송 대비 ‘음압 들것’도 도입했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바다의 앰블런스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해상과 도서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신고전화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정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